

‘전국 출산율 2위’ 강진, 출산 정책 벤치마킹 발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 보전소 방문
공공산후조리원·육아수당 지원 등 ‘주목’

강진군의 육아정책이 전국 2위 출산율을 견인하며 전국 곳곳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생 20여명이 강진군보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제고 우수사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양육 친화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강진군은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감면, 강진군 산후조리비(154만원) 지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생에게 설명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임신 계획 단계부터 출산 후 지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생 20여명이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등 강진군의 출산 장려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가운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강진군 제공>

까지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전국 2위를 달성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강진군은 임신 계획 단계에서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

원하고 임신부에게는 ▲엽산제·철분제 지원 ▲초음파·기형아 검진비 지원 ▲안전벨트 대여 ▲자궁자궁자궁 ▲출산용품 등을 지원한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전면 개방

해양산책로·친수광장·낚시터 등

목포시는 9일 “대반동에 조성된 해양산책로, 친수광장, 낚시터 등 해양친수시설을 전면 개방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반동 해양친수시설은 2019년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에 ‘대반동 수제선 정비사업’을 건의하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총 72억원 전액 국비를 투입해 조성했다.

시설은 친수광장 1천37㎡, 해상산책로 207m, 낚시터 130㎡와 야간 경관 조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 10월 착공해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한 후 지난 5월 목포시에서 준공시설물을 이관

받아 공식 개방했다.

목포 대반동 권역은 지난해 연안정비와 스카이워크 확장에 이어 올해 수제선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떠오르는 해양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목포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낚시 행위가 제한돼 있어 이번 대반동 낚시터 개방은 낚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전면 개방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목포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도시 목포의 매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최대 40만원...읍·면사무소 신청

함평군은 9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함평군 등록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은 2024년도 카드 매출액 기준 수수료의 0.8%(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된다. 단, 유흥업소, 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여신금융협회, 국제정신폭스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경제과 (061-320-17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은수 기자

“불명하러 영암도기박물관으로 오세요”

13-15일 도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암도기박물관은 9일 “주말인 13-15일 3일간 장작가마(사진) 소성과 함께 다양한 도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년을 이어온 영암도기 문화를 계승하고, 영암군민, 관람객 등과 그 정수를 누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도기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구림도기의 전통을 품고 있고, 장작가마는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 소성 방식이다. 이번 장작가마 소성에서는 약 200여점의 생활도기와 장식도기 오브제가 완성된다.

특히 고온으로 구워내는 시유도기의 새로운 색감과 질감 시도도 병행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작가마는 이틀간 예열을 거쳐 3일째 분불 소성으로 이어지고, 불꽃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도기 색감은 장작가마 소성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이런 특성을 살려 영암도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작가마 소성 관람객에게는 불명, 소원 쓰기, 장작 폐기 체험 프로그램이 현장 신



청과 함께 무료로 제공된다.

장작가마를 바라보며 불의 흐름에 마음을 맡기고 시름을 잊고, 장작에 바람을 적어 소원을 비는 체험 등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불과 흙이 만나 전통을 잇는 특별한 경험에 초대한다”며 “영암도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총 3회에 걸쳐 장작가마 소성 등으로 영암 시유도기 유약 개발, 도기 관광상품 제작에 나선다. 다음 장작가마 소성은 추석 연휴와 월출산국화축제, 한옥 비엔날레와 연계 추진된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 북평 남창리 일원 ‘문화의 거리’ 조성

영화 ‘호프’ 접목 70-80년대 재현

해월루 등 역사문화 관광기반 구축

해남군이 북평면 남창리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북평면 남창리 일원은 완도군과 맞닿은 소재지로 1555년(명종 10) 달랑진왜변 이후 이곳에 곡식 창고인 남창(南倉)을 두어 남창이라는 지명을 갖게 됐다.

임진왜란의 전초전이라 평가되는 달랑진왜변이 발발한 역사적 현장이자 제주를 오가는 배가 폭풍을 피해 잠시 정박하는 해상통로로 오랫동안 이용돼 왔다.

예구를 막기 위한 달랑진 성벽과 바다를 조망

하는 해월루 등 역사문화자원이 재정비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해변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땅끝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인근 이진마을의 이진성지와 북평 용출다리 기 놀이, 남창 오일시장 등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으로도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문화의 거리 조성은 최근 남창에서 진행된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와 연계해 추진한다.

영화 ‘호프’는 지난해 북평면 남창리 거리를 세트장으로 조성해 촬영됐으며,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의 거리는 영화 배경인 70-80년대 거리를 연출하고, 주요 촬영지에 위치한 상점 전면과

간판을 영화 촬영 당시로 복원해 복고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남창의 역사와 영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고, 옛 북평면사무소 건물을 원형 복원해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등 관광객들이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현재 북평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거리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북평면 일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특별한 장소로 꼽혀 왔다”며 “영화 촬영을 계기로, 이러한 특성을 더욱 살려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 해조류 양식 글로벌화...WWF·미국서 찾아와

양식장·건조·바이오산업 시설 등 견학

국내 해조류 최대 생산지인 완도군에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미국, 포르투갈 해조류 산업 관계자들이 찾았다. <사진>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세계자연기금(WWF)과 인천대학교의 해조류 양식 산업 발전 및 연구자·기업인 교류를 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완도군 해조류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해조류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군수는 “지난주 세계은행(WB)과 개발도상국에 이어 세계 각국에서 완도 해조류 양식 현장을 찾아온다는 것은 해조류 및 양식 방법이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단은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주요 배양장, 해조류 양식장, 해조류 건조 시설,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시설인 해양 헬스

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치유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해양치유센터 등을 견학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해조류 양식 책임 전문가 베일리 모리츠(Bailey Moritz)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과 가공 시설은 규모와 전문성 면에서 매우 뛰어나다”며 “지속가능한 해조류 산업의 모델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조류 홍보팀장인 토드 페이지(Todd Paige)는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체험을 통해 해조류가 힐링과 웰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무안 출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지역 기대감 ‘고조’

경제기획·조정 능력 높이 평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출신인 김용범(사진)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김용범 제1차관은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과 조정 역량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중심 실용주의’ 노선을 뒷받침할 중용 인사라는 분석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를 취득했다. 이후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정책의 핵심 부처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며, 대외경제 전략과 재정 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안정적인 경제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실장의 임명을 두고 “경제 현실에 정통한 실무형 전문가의 중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안정성과 연

속성을 일정 부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하고 있다.

무안군 해제면 주민들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물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이끄는 자리에 오르게 돼 자랑스럽다”며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고향의 이름도 빛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과거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업 경험도 풍부해, 향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로도 주목받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